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19. 11. 19(화) 총 5매(본문4)	
담당 부서	철도건설과	담 당 자	·과장 임종일, 사무관 천홍식, 주무관 김헌태 ·☎ (044) 201-3950, 3953, 3957	
보 도 일 시		2019년 11월20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20(수) 06:00시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 균형발전의 초석 예타면제 철도건설사업 본궤도 진입

- 국토부, 20일 남부내륙철도 등 5개 사업 기본계획 착수
- 전국 권역 연결하는 물류 교통망 구축 →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
- 철도 수혜지역 확대로 안전하고 편리한 여객·화물 수송 서비스 확
충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남부내륙철도, 평택~오송 2복선화, 충북선 고속화,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및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착수 함으로써 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고 밝혔다.
- 국토부는 11월 15일 남부내륙철도 등 5건의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수행사를 최종 선정하였으며, 11월20일부터 기본계획수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.
- 각 사업은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,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기반시설(인프라)을 확충하고 전국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.

<에타면제 철도건설사업 시행효과>

□ 평택~오송 2복선화 사업은 고속철도 병목구간을 해소하여 고속철도 운행횟수를 대폭 증가시킬 것이다.

- 그간 전라선, 동해선, 경전선 등 기존선 활용 지역에 고속철도 운행횟수를 늘려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지속되었으나 평택~오송 구간의 선로용량*이 포화되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.

* 선로용량 : 일정한 선로구간의 1일 동안 운전가능한 최대 열차횟수를 의미함.

경부고속선 평택~오송 구간의 선로용량은 190회/일이며, 현재 176회/일 운행 중

- 이번 사업을 통해 수서·서울·용산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가 필수적으로 통과하는 평택~오송 구간에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 건설하면 전국 권역의 고속철도 확대 공급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부터 KTX 또는 SRT를 이용하여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2시간 40분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

- 그간 철도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영남 내륙지역에 고속철도를 직접 건설하여 낙후지역의 교통 선택가치를 개선하고 산업 및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* 서울~진주 : (경전선KTX) 3시간 25분 → (남부내륙) 2시간 15분

** 서울~거제 : (승용차) 4시간 30분 → (남부내륙) 2시간 42분

□ 충북선 고속화는 기존 충북선의 선형개량을 통하여 충북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연계 노선의 직결운행으로 이용자의

편의성 및 이동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.

- 현재는 목포에서 강릉까지 4~5시간이 소요되나,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시행되면 3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.

* 목포~강릉 : (철도) 4시간18분(서울경유), 4시간50분(충북선 경유), (승용차) 5시간20분
→ (충북선고속화) 3시간 02분

-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및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은 국가 주요 거점 산업단지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화물운송 효율화와 함께 근로자의 출·퇴근시간을 단축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.

- 대구산업선의 경우 대구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화물운송은 물론 기존 도시철도 등과 연계하여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출·퇴근 등 철도교통 편의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(통행시간 절감) 승용차 73분 → 철도 38분, △35분

* (도로 교통량) 대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4천대/일 감소,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2천대/일 감소

-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석문산업단지와 송산산업단지에 철도 화물 운송이 가능하도록 철도를 연결하고 적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철도를 이용하여 전국으로 배송될 수 있어 화물운송 효율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(현재) 제철공장/석문산단→신례원/삼교역으로 트럭운송(40~50km)한 뒤 부산신항/부산진/신광양항 등으로 운송 ⇒ (장래) 트럭운송거리 3km 내외로 최소화

-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“예타면제 철도 사업을 적기에 개통하여 철도 수혜지역을 조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, 후속공정인 설계와 시공 등의 사업관리에 만전을

기하겠다” 면서,

- “철도 건설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는 핵심사업인 만큼, 기본계획 단계부터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” 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
건설과 천홍식 사무관(☎ 044-201-3953), 한국철도시설공단 토목설계처 김효승
과장(☎042-607-458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